

다니엘 37 강

다니엘서 10 장들어갑니다. 1 절부터 몇절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삼년에 벨트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그 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삼 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삼 주 전체가 다 찰 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리므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 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아직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자 이제는 마지막 환상입니다. 다니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때부터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긴 시간 동안을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조만간 닥칠 일들에 대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보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환상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짓 것을 보여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처럼 그런 것을 찾다가 잘못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지구를 통치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던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이걸 따라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본 환상들을 기록해놨습니다. 다 들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게 전부다 환상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환상을 불려고 하지 않고 뭘 자꾸 헛것을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속습니다. 뭘 봤다고 하면. 그리고 성경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다들 소경이 되가지고 안보이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죠. 이걸

지금으로부터 한 2500 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B.C533 년 정도. 다니엘은 이미 그때 90 이 넘었을 겁니다. 고관직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 나이에는 은퇴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계속 상고하면서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지 절대로 안보여 줍니다. 고레스왕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내 종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판을 받았고 때가 되면 불못에 떨어지지만 그때까지 마지막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또 한번 사단을 꺼내 가지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넘어가는 사람은 불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마귀를 없애 버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귀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레스왕 때에 왕국 전역에 글로 써서 포고해 가지고 유다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러한 포고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포고령이 떨어졌는데도 에스라서 2 장 64 절 보면 겨우 4 만 2 천 3 백 6 십 명 정도밖에 안돌아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70 년을 살았어요. 자녀를 낳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몇십년 살았는데 한국에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터전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70 년이에요. 겨우 4 만 2 천 3 백 6 십명이 거기 갔다고 에스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남종들과 여종들 그들을 섬기던 종들이 7 천 3 백 3 십 7 명이라고 65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그 바벨론 땅이 이국 땅이었지만 그런데도 삶의 터전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봐야 당장 농사를 짓는데 돈도 들 것이고 힘이 들 것이기 때문에 별로 가지 않은걸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다니엘을 계속해서 이방나라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 그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요한을 통해서 보여 준 것처럼 먼저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에게 보여 준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모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뭔지 모르고 에스겔서를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고 모든 선지서들이 요한계시록에 결론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때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가장 쉬운 책이다. 그런데 믿기는 가장 어렵다.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깐 이것을 다 상징으로 풀어요. 신학교들이 99%가 다 상징으로 풀어 놓으니깐 우리가 살 새예루살렘도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다 이걸로 만족하고

교회마다 그걸로 다 얘기하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또 한가지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것은 8장에서 본 환상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을 알고 고뇌 가운데서 기절을 해가지고 며칠을 앓았다고 했지요? 삼주 동안이나 꼬박 기도하고 있었죠? 기력이 쇠할대로 쇠했었죠. 금식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환상을 말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의 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에 나타난 일은 정해진 때가 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태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초는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수백억년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지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걸 공부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중에 물을 때아무 말 못할 거예요. 너 평생 살면서 성경을 한번도 안 읽었느냐? 성경 한권도 네 머리속에 못 집어 넣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언이 될꺼예요. 다들 아! 이걸 언제 다 공부해요? 세상 것은 많이 공부해요. 썩을 것들을. 예수님이 그랬죠?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안들리는 거야. 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육신밖에 없죠. 그 혼이 육신만 따라 가는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영의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읽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연설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 승들이 더 잘압니다. 불교에 있는 승들이 더 잘 안다고요. 그 사람들은 세상 것 다 버린 사람들 이에요. 요즘은 또 안그렇지만. 옛날엔 다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머리를 뺄뻑 깎고 가진것이 일푼도 없는 사람들이 설교하는게 더 설득력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잘먹고 잘살면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너나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그랬죠?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도 낳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임신해 가지고 9 개월

동안.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핏덩어리 육신을 낳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게 쉬운 일이 아네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를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잡을 때까지 다시한번 해산의 고통을 치룬다고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어제도 AA 미팅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한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할 때에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 놓더라고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대중을 상대하면 안되요. 그 분이 여기저기 다닐 때 한 마디도 안하던 사람이예요. 여기 와가지고 마음이 탁 열린 거예요. 나는 벌써 알았죠 처음 봤을 때. 그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 왔는지 거의 알았죠. 역시 그렇더라고. 어제 그냥 얼굴이 흰해지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 때에 찬 경륜이다.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6 일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이제 인류역사 6 천년이 끝나 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난단 말예요. 로마 캘린더(Roman calendar)가 아니라. 끝나 버리면 끝이예요. 여덟째 날에는 영원히 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 년 있었던 것도 엄청나게 긴 세월이었죠? 이것을 알았죠 다니엘이? 한 2~3 년 후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70 년의 일곱 배. 그게 또 앞으로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끝난줄 알았더니 70 년의 일곱 배야. 70 이레가 남았다는 소리에요. 물론 69 이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때 끝났죠?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지고 죽으실 때 끝났죠? 그러나 한 이레가 또 남은 거예요. 그것을 사도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요한에게 보여준게 마지막 한 이레. 이게 7 년 대환란이예요. 이거는 뭐 운명적인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혼자 깨달으니까 완전히 죽은 목숨처럼 된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들을 보면 다 불쌍해 보여요. 저 사람도 저사람도 모르고 있지. 안타까워서 내가 얘기하면 뭐 그런걸 얘기하냐고. 다니엘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얘기도 하나도 안들었죠?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야 예레미야야 네가 예루살렘을 뛰어 다니면서 봐라 누가 공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때 비올로 그렇단 얘기에요. 아마 대환란때 그렇게 될거예요. 14 만 4 천이 전도할때 다 웃을거예요. 욕할거예요 재앙이 오니까. 그게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전도하지 않고 못베겨요. 나는 아니까. 모르니까 다들 그런 거예요. 왜 전도를

안합니까? 앞으로 될 일을 못 보는거예요. 환상을 못 본거예요. 환상 그러면 기도할때 눈 감고 있으면 뭐가 보이는 걸 생각해요. 성경이 다 환상이예요. 이걸 못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일, 환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일이 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임을 환상의 내용들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히스토리(History)라고 그러죠? 이것을 두 단어로 하면 His story , 즉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His story 에요. 세상의 history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과거의 사건만 떠올리지만 하나님의 history 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역사입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것이 미래의 역사입니다. 이게 breaking 뉴스입니다. 내가 TV로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여러번 그랬어요. 내가 지금 브레이킹 뉴스의 앵커라고. 지금 채널 7,4,2 보지 말라고. 거 지나간것 보는게 뭐가 중요하냐고? 앞으로 될 일을 봐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몇사람이 알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인류를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하나 하나도 주관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사도바울이 로마서 8 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죠. **[내가 이른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기도해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읽을 때도 말씀으로 주시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말씀으로 받고 아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이걸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예요. 뭐 환청 듣는거 아녜요. 요즘은 환청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병자들이 대부분 환청을 듣거든요. 그런데 정신병자가 예수 믿다가 정신병 걸리면 아주 교회에서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여요. 환청 듣는 것을 막 써가지고 보여 주고.... 절대 믿으면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나 민족, 국가나 한 개인의 역사도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삶의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상적인 일거수 일투족 이것을 일일이 살펴보고 우리가 하는 말들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생각없이 한말도 내가 그런 말을 왜 했는가? 함부로 말하면 안되요. 웬만해서 말하면 안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깨달아서 한말이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다 듣고 계십니다. 한번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지요? 물론 행동도 그렇죠? 심지어는 머릿속에 떠올리고 공상하는거 이거까지 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것은 뭔가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좌로나 우로나 가면은 뱀과 전갈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땅이 광야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죠? 뱀과 전갈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우리의 모든것을 곁에서 살펴 주시고 그리고 합당하게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되요. 성경은 다른 책들처럼 어떤것을 기록해 놓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책입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알게 되지 아무나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있습니다. 사도바울과 교제하고 주님과도 교제하고. 성경을 깊이 읽을 때 되는거지 적당히 읽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성경 구절들과 대화하고 교감하고 이렇게 해야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밤새는줄도 모르죠. 이걸 해봐야 되요. 리햐 셀터 형제들, 마약하고 감옥가서 10 년 있다 나온 형제가 내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기 우리 멕시코 스페니쉬 교회 같이하던 마리오 목사님 그분도 마약하고 갱하던 사람이예요. 생긴거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세상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런데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멕아더 목사님 교회에서 18 년 훈련받고 말씀으로 가득차 있죠. 말씀에 붙들려 살아요. 뭐 한국 사람들처럼 할렐루야 그러지도 않아요. 말씀이 딱 차있으니까. 미국 크리스찬들 말씀으로 꽉찬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빈 깡통이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나죠? 땡그랑 땡그랑 소리나죠? 미국 사람들 기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들 24 시간 기도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미국 사람들 기도 안한다고. 우리처럼 몇 시간씩 기도 안한다고. 기도는 호흡처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되요. 자 2 절 보니까 **[그 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3 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서 끝난게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도 회개할 죄들이 많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9 장에 나오죠? 그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69 주째에는 메시아가 끊어지고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고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이고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다. 이것을 알고 고뇌속에서 번민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마지막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태로 응답을 기다리면서 꼬박 3 주간을 기도했다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한 기도는 스물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응답이 되었죠. 어째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터지고 응답이 되었는가? 주의 천사가 설명하는 이유, 페르시아 국군이 방해했다고 그랬죠? 3 절에 보니까 **[3 주 전체가 다 찰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리치잖아요. 내 문제 내 문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럴려면 성경을 모르면 안돼요. 그러니까 다 내뜻대로 해달라는 거야. 달라는 거야.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뭐 어떤 교회는 일천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일천 번제라는게 일천 번을 드리는게 아니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단 말예요 주의 종들이. 그래가지고 5 천불 드릴것을 5 불씩 천번 드린대요. 세상에 도대체 이게 뭐냐 말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응답된다고. 제가 옛날에 집사 시절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거죠. 또 그걸 믿고 하는거야. 일천번 제가 일천번 제가 아니고 일천 번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소 일천 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한 마리씩 일천 번 드린게 아녜요. 이렇게 성경을 모른단 말예요. 제대로 안읽으니까 그런거예요. 한국말 아녜요? 일천 번제데. 일천 마리 드렸다고 분명히 되었잖아요. 그걸 그렇게 꼬아 가지고 하니까 미혹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먹고싶은 빵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 맛있습니까? 딱딱하죠? 누룩이 들어 가야지만 여러가지 향료가 들어가야지만 맛이 있죠? 그런데 먹고싶은 빵을 못먹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굶은 배움을 입고 재를 뿌렸어요. 이러면서 기도했다.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 당연하죠. 4,5,6 절 보면 말이죠. 그때 히데겔 강변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두르고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얼굴 모양은 번개 모양같고 눈은 햇불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지요? 다니엘 뿐만 아니라 욥, 이사야, 에스겔에게도 일어났고 바울에게도 일어났죠? 욥에게 나타났을 때 욥이 어떻게 했죠? 그래도 욥이 나는 의롭다 했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보다 의롭죠? 아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티끌과 잿 속에서 회개하나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니까 내가 드러나는데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더라고. 남이

안보이더라고요. 꼬꾸라져버렸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렇게 내 모습이 드러나요. 남이 안보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얘기에요. 사도바울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 다음에 이사야도 주님의 보좌가 내려왔을 때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령이 못들어와요. 완전히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들일 때 성령이 들어 오시죠?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서 먼저 씻어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들어오시죠. 사람들 보면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왔다간 큰일나는 데. 무서운 애깁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일 때 내가 오겠다 그랬어요.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게 아네요. 믿음으로 오신걸 알아야 되요.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한단 말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저기 빈야드 처치 거기에 찬양들 보면 참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 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도다.]** 기운이 없는 거야. 일어날 기운도 없었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죠? 완전히 빛이 비추면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는 장님이 되버렸죠? 말에서 떨어졌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고 마시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떠졌고 침례를 받고 나서야 음식을 먹고 겨우 기운을 차릴수 있었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1장 17절 보니까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앞에 엎드려지니]** 똑같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체험들은 대환란 기간에 있게 될 그리스도와 만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들(유대인과 크리스찬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속에는 앞으로 히브리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당할 것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모르고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본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뭐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거예요. 그건 환란 때 하는 얘기에요. 환란때에도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해요. 그때 떨어져 나가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은 성령으로 완전히 인을 쳤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터치못합니다. 다시말해서 사단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터치할수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터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혼의 구원이지만 몸의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구원이 아녜요. 이것을 잘모르니까 자꾸 성경을 보면서 못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전후, 요한 1,2,3, 요한계시록은 그런 경륜이란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데 올바로 나누지 못하니까 마치 역사공부하는 것처럼 신라시대것을 고려시대에 갖다 붙이고 고려시대것을 이조시대에 갖다 붙이고 그런식으로 공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죠. 아 이왕이 고려 왕인가? 고구려 왕인가? 이조 왕인가? 이렇게 헛갈리면 시험 빵점 맞죠? 요즘에 무슨 성경 공부 방법도 귀납적인 성경공부 알파코스 별게 다 나오는데 다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다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보다 자기 말을 더 믿게 하는거예요. 얼마나 이런 때가 됐는지. 사람들이 공부를 안하니까 빨리 시키다 보니까 미혹당하는 거죠. 성경은 전체를 공부해야 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나와 가지고 매일 공부했죠. 그나마 새벽이라도 여기에 나오면 매일 공부하죠. 아니 나흘 밖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 장 28 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번 드리지셨고 두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없이 나타나신다.]** 이거는 일단 히브리인들에게 환란 때 다시한번 나타날 때 이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을 보고 막고구라진 것처럼, 욥이 꼬꾸라졌잖아요? 결국 뭣이죠? 욥이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38 장이죠? 욥기가 42 장 아녜요. 이게 3 년반, 42 개월을 말씀하신거니까 이제 환란이 끝나기 얼마전에 욥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질때가 오는 거예요. 이걸 보여 주는 거예요. 욥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스 땅에서 대환란에 42 개월 후삼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고통받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욥이 모년에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마지막 한이레에 고난을 받고 회개할 때에 모년에 가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갑절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뚫리게 되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대환란 기간에도 구원받게 될 환란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 장 14 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추구하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럼 주님 못본대요. 이거는 대환란때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남의 죄 용서 못해주면 우리 지옥가게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먹을 양식이 없어요. 도망다녀야 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대환란때 그렇게 구하게 되고. 옛날 광야 때 하루 하루 만나를 먹고 산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거예요. 왕국은 유대인들의 왕국입니다. 이 지상에 이르는 왕국은 유대인들의 왕국,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의 왕국이에요.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되 가지고 이 땅에서 일 많이 한 사람들은 주님과함께 내려와서 통치자가 되는 거죠. 백성이 되는게 아닙니다. 예수 안믿고 그러다가 환란에 넘어가서 목썰려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되가지고 통치자가 되지만 어찌어찌하다가 천년왕국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종이 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부끄럽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분이십니다. 6 절에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변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여러분 요한이 주님 만날 때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듯한 빛나는 놋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죠? **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 같더라. 또 인자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이게 누구니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이 오실 주님을 미리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미카엘 천사장이래요. 예수님이 미카엘 천사장이라 그래요.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이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할텐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하루에 몇십장 정도 읽으세요. 몇십장 정도만 읽어보면 깊이 들어가면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못들어가게 해요. 졸리게 하고. 일이 생기게 하고. 성경을 계~~~속 보면 눈이 번쩍 열립니다. 퍼즐(puzzle)같다고 얘기했죠? 퍼즐을 착착 붙이면 나중에 그림이 보이는데. Kingdom of God 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보인다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참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먹고 사는데 지쳐가지고 사람들이.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받은 다니엘이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 마지막 한 이레가 우리 앞에 놓였는데 이것을 알면 다들 정말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텐데 썩을 것을 위하여

분주하게 교회들이 나는 괜찮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저 먹고 살고 몸건강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교회마저서도 사람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눈이 멀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라. 네가 별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밝히 알려 주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니엘처럼 환상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수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본 사람들은 누가 핍박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지 못하고 얘기하니까 핍박을 당할때 다 쓰러지는데 도와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라면 믿음으로 살텐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두가 다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이룰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주님앞에 간구하는 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리 볼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